

##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고를 위한 제언

### 지방보조금의 의의 및 최근 동향

#### ○ 지방보조금의 개요

-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자원
-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과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을 운영하는 재원으로,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재원
-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보조금의 예산규모가 팽창일로에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
- 이에 지방재정법(2014년 5월 28일 공포)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(2014년 11월 28일 공포)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,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,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

#### ○ 2016년도(2015년 실적)부터 성과평가 실시

- 2016년부터 전년도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,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
-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은 사업계획(15점), 사업관리(25점), 사업성과(60점) 등 3개 분야, 8개 지표로 구분하고 예산낭비가 있을 경우 페널티 20점 적용
- 평가결과의 배점은 매우 우수(90점 이상), 우수(90~80점), 보통(80~60점), 미흡(60~50점), 매우 미흡(50점 미만) 등 5등급으로 구분

#### ○ 활용

- '미흡' 이하의 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

#### ○ 성과평가 사례

- 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매우 우수가 전체의 71.7%, 우수 26.0%, 보통 2.0%, 미흡 0.1%, 매우 미흡 0.2% 등 우수 이상 사업이 97.7%에 이룸
- 평가결과만을 기준으로 할 때 다소 온정적인 평가로 판단

#### 〈사례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자체 성과평가 결과(2015년 실적)〉

(단위: 건, %)

구분	총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총계	3,724	2,669	968	76	4	7
비중	100.0	71.7	26.0	2.0	0.1	0.2

###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개선시 주안점

#### ○ 사업추진 단계별 미흡한 점

- 사업계획 단계: 사업목적 및 지원 필요성의 구체적 제시 미흡, 추진단계별 예산 미편성
- 사업추진 단계: 자부담비율 미제시 및 부담비율 미준수, 일부 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보조사업 추진
- 사업완료 단계: 정산시기 미준수 및 정산서류 부실 등 다수 발견

#### ○ 객관적·중립적 평가의 한계

- 사업수가 많고 보조사업자들이 당해 지역 주민이며, 지역적 연대감으로 자체평가의 한계 노정
- 즉, 조직 내부(자치단체장, 실·국·과장, 의회의원 등)와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자체평가가 힘든 구조적 한계 존재
- 사업부서에서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보다는 친밀성을 이유로 불량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 지원사업으로 평가하는 경향
- '미흡' 대상 사업에 불가피하게 종료되는 사업, 일몰이 어려운 연례 반복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 발생
- 평가지표가 구체화되고 계량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국별로 각각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 유지 곤란

#### ○ 지방보조금제도의 한계

- 부서별 한도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
- 사업비가 소폭 증가해도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 마련 필요

###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위한 방향

#### ○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

- 사전, 사후 절차 준수 및 보조사업 수혜의 기회균등 필요
- 정책환류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성과평가후 지속적 관리 필요
-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, 중립적 평가 필요

#### ○ 평가기준의 지역특성화 및 객관성 담보 필요

-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고 구체화된 지표체계 필요
- 정산보고서 제출시 외부 공인인증기관의 증명 첨부 등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

#### ○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

- 한정된 자원 내에서 지방재정을 운영해나가는 현실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은 권장하되 소모적이고 극히 일부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은 지양토록 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당초 목적
- 우수사업은 유지 및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이 불분명하고, 1회성·낭비성·행사성 사업은 예산삭감이나 일몰이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
-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질적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 필요

▶ 내용문의 : 김성주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, sjkim@krila.re.kr, 033-769-9874)

지나호 보기 :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(김건위 연구위원) [원문보기](#)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[brief@krila.re.kr](mailto:brief@krila.re.kr)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